

## 설원 위 곡예·속도 싸움 스노보드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스노보드는 설원 위를 보드로 질주하며 속도와 곡예 싸움을 벌이는 스포츠다.

196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스노보드는 1970년대 서퍼들과 스케이트보더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스노보드는 스키와 함께 겨울 스포츠 대표로 자리매김했고, 1990년 국제스노보드연맹(ISF) 결성 이후 1998 나가노 동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는 개막식 전날인 2월5일부터 19일간 이탈리아 톨바르디아주 손드리오도의 리비노에서 열린다.

리비노는 알프스산맥 해발 1816m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작은 티베트'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스노보드는 크게 묘기를 겨루는 하프파이프, 슬로프스타일, 빅에어, 속도를 다투는 평행대회전, 스노보드 크로스 나뉜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를 내려오며 공중 연기를 펼치는 종목으로 높이, 회전, 테크닉, 난이도 등을 심판들이 채점한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 테이블, 박스, 월

1998 나가노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

하프파이프·슬로프스타일·빅에어는 곡예

평행대회전·스노보드 크로스는 속도 경쟁

'젊은 피' 이재운·최가운, 세계 무대에서 두각

등 다양한 구조물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에서, 빅에어는 1개의 큰 점프대를 도약해 묘기를 선보이는 방식이다.

평행대회전은 두 선수가 평행하게 설치된 두 기문 코스(파랑·빨강)에서 동시에 출발해 빨리 통과하는 선수가 승리한다.

스노보드 크로스는 점프, 모굴, 와이드 커브가 있는 트랙에서 경주를 펼치는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하프파이프, 슬로프스타일, 빅에어, 평행대회전, 스노보드 크로스과 함께 혼성단체 스노보드 크로스까지 더해 1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 스노보드가 올림픽에서 포디움에 오른 건 지난 2018 평창 대회 당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호가 유일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젊은 피' 이재운(경희대)과 최가운(세화여고)이 기대주로 꼽힌다.

이재운은 2022~2023시즌 국제스키연

맹(FIS) 세계선수권대회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깜짝 우승을 달성했다.

이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슬로프스타일과 하프파이프에서 2관왕에 올랐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슬로프스타일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재운은 2022 베이징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출전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에서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최가운은 2023~2024시즌 FIS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챔피언으로 등극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지난달에는 2025~2026시즌 FIS 월드컵에서 2주 연속 우승, 18일에는 시즌 3번째 우승을 이루며 올림픽 준비를 마쳤다.

실상 종목 불모지인 한국 출신으로 최근 스노보드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두 선수가 올림픽 메달까지 거머쥌 수 있을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뉴시스



▲이재운이 중국 헤이룽장성 아부리 스키리조트에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을 앞두고 연습하고 있다. 이재운은 이날 강풍으로 결선이 취소되면서 예선 성적(43.75점)으로 순위가 결정돼 최종 6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스노보드 국가대표 최가운이 중국 헤이룽성 장자커우시에서 열린 2025~2026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하프파이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뉴시스

## 부상 극복 최가운, 우상과 대결서 '금빛 도약' 꿈꾼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2024년 1월 허리 부상... 긴 재활 끝에 설상 복귀  
올림픽 시즌 월드컵 3개 대회 연속 금메달 행진

혜성처럼 나타나 한국 스노보드계를 환호하게 만든 '고교생 스노보더' 최가운(세화여고)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금빛 도약'을 꿈꾼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우상을 넘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는 각오다.

최가운은 2023년 1월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이벤트 X게임에서 파이프 종목 최연소(14세 3개월) 우승 기록을 써내며 혜성처럼 등장, '스노보드 신동'으로 불렸다.

2023년 12월 미국 콜로라도주 코퍼마운틴에서 열린 2023~2024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주향 반대 방향으로 공중에 떠올라 두 바퀴 반을 회전하는 '스위치 백나인'을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성공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대회가 최가운의 월드컵 데뷔 무대였다.

이후 최가운이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무렵 부상 암초를 만났다.

최가운은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2023~2024시즌 FIS 월드컵에서 결선 직전 연습 레이스를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같은 시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도 불발됐다.

다시 보드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잠시 눈발과 거리를 뒀던 최가운은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재활에 매달렸다.

1년 동안 힘겨운 시기를 보낸 최가운은 공교롭게도 부상을 당했던 락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2025년 1월 락스 월드컵에 나선 최가운은 긴장감과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감을 끌어올린 최가운은 미국 애스펜 월드컵에서도 은메달을 수확했다.

2025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예선 2위를 하고도 결선에서 12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던 최가운은 올림픽 시즌인 2025~2026시즌 더욱 힘차게 날아올랐다.

지난해 12월 중국 장자커우 월드컵, 같은 달 미국 코퍼 마운틴 월드컵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감을 끌어올린 최가운은 미국 애스펜 월드컵에서도 은메달을 수확했다.

2025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예선 2위를 하고도 결선에서 12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던 최가운은 올림픽 시즌인 2025~2026시즌 더욱 힘차게 날아올랐다.

지난해 12월 중국 장자커우 월드컵, 같은 달 미국 코퍼 마운틴 월드컵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감을 끌어올린 최가운은 미국 애스펜 월드컵에서도 은메달을 수확했다.

2024년 부상을 당했던 장소에서 2025년 동메달, 올해 금메달을 수확해 최가운에게는 한층 의미있었다.

이번 시즌 FIS 월드컵에서 금메달 행진을 벌인 최가운은 다가오는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후보로 급부상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기대주이자 한국 스노보드 긴판 최가운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울렛스포츠 본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가운은 지난 중국 헤이룽성 장자커우시에서 열린 2025~26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2.75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해 이번 올림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뉴시스

들이 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가운은 모두 유일하게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며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두 대회에서 1차 시기에 실수하고도 2차 시기에 높은 점수를 획득해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최가운은 올림픽을 약 2주 앞둔 지난 18일 락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도 92.50점을 획득해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에도 1차 시기에 20점대 점수를 받았다가 2차 시기에 반전을 이뤄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운은 "예전에 내가 사지 요청을 했던 클로이 언니와 함께 월드컵을 뛰는 것 자체가 설렌다. 어릴 때부터 담고 싶었던 클로이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꿈 같고 영광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도 "올림픽 때에는 경쟁자를 신경쓰기보다 내가 펼쳐야 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커머스레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흥 GS건설

㈜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